

‘바람의 아들’ 주니어... 아빠 못지않네



이종범 아들 정후군 맹활약... 서석초 전국유소년야구 왕중왕 등극

역시 피는 못 속이네. ‘바람의 아들’ KIA 이종범의 아들 정후군이 투타에서 활약한 광주 서석초가 스포츠포토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왕중왕에 등극했다.

서석초가 26일 속초 영랑초 야구장에서 열린 2010 스포츠포토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왕중왕전에서 마산 무학초를 상대로 7-4 강우월드게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정후군은 결승타의 주인공이 되어 주장으로의 만점 활약을 선보였다. 올 시즌 투수로도 마운드에 오르고 있는 이정후는 역대 최강 전력으로 손꼽히고 있는 서석초의 유격수와 주장을 맡으며 공수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아버지 이종범을 빼닮은 운동 신경에다 호타준족에 수비력과 리더십까지 갖춰 대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이날 경기의 분수령은 5회였다. 5회 초 잘 던지고 있던 선발 김석환이 솔로홈런을 맞는 등 서석초가 2실점을 하며 4-4 동점을 허용했다.

서석초는 5회 말 반격에 나섰다. 첫타자 김세웅이 2루타를 치고 나간 뒤 도루로 3루까지 내달리며 무약초 마운드를 흔들었다. 이때 타석이 들어선 이는 1번 타자 이정후. 이정후는 중전안타로 1타점 역전 결승타를 때려내며 아버지에게서 해결사의 면모까지 이어받았음을 보여줬다.

초등부 4개 리그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회 서해리구 우승팀인 서석초는 지난 24일 동해리구 우승팀 대구 남도초와의 왕중왕전 첫 경기에서 홈런 4개를 터트리는 화력을 과시하며 11-10으로 재역전에 성공, 결승에 진출했다.

지난 8월14일 대전에서 끝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공동 우승을 차지한 서석초는 유소년야구대회 우승에 이어 왕중왕전도 승리로 장식했다. 서석초는 지난 6월 제7회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정후)

‘사구충격’ 윤석민 엔트리 제외

통증호소 걱정철도...호랑이 4강 희망 사라져



민었던 KIA 타이거즈의 마운드 ‘86라인’이 붕괴되면서 호랑이들의 4강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KIA 타이거즈의 실낱같은 4강 진출의 희망을 지켜냈던 86년생 동갑내기 투수 윤석민과 박정철이 엔트리에서 사라졌다.

25일 박정철은 훈련 도중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박정철은 26일 서울 김진삼정형외과를 찾아 MRI 촬영을 한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1~2주 재활치료와 훈련 진단이 나오면서 사실상 시즌 아웃이다.

부진으로 2군에 다녀왔던 박정철은 지난 15일 복귀 후 4경기에 등판해 5와 3분의 2이닝 동안 단 하나의 안타만을 내주는 등 완벽 투를 선보이며 볼펜에 힘을 실어줬다.

윤석민도 기약없는 2군행에 올랐다. 지난 24일 롯데와의 원정경기에서 받은 충격이 컸다.

경기 도중 롯데 조성환의 머리를 맞추었던 윤석민은 흥분한 롯데팬들의 아우성 속에 공을 던졌다. 앞서 15일 롯데의 중심타자 홍성흔이 윤석민과의 승부에서 손등 골절을 당하는 등 공교롭게 롯데의 두 중심타자를 상대로 사구가 나오면서 이날 사구직장은 이수라장이 됐다.

쓰레기 투척과 흥분한 팬에 의한 선수 폭행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윤석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25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 신세를 졌던 윤석민은 26일 평소 상담치료를 받아왔던 대전 선병원원을 다녀왔다.

스트레스성 증후군에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윤석민은 이날 코칭스태프와의 면담을 통해 당분간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엔트리에서도 제외됐다.

이들의 부재는 바로 팀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 박정철·윤석민이 자리를 비웠던 25일 KIA는 LG와의 대결에서 8회 3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7-8의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메시’ 연속 골... 골

26일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회 통일대기 전국여자중별축구대회’ 한양여대와 여주대외의 대학부 결승전에서 한양여대의 지소연이 슛을 시도, 성공시키고 있다. 지소연은 이날 후반 23분과 36분에 연속골을 터뜨려 4-1 대승을 선도했다. /연합뉴스

“오은선 칸첸중가 등정 못했다”

대한산악연맹 결론



대한산악연맹이 히말라야 8천m급 14좌를 완등했다고 선언한 오은선 씨의 칸첸중가 등정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연맹은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경기단체 회의실에서 칸첸중가 등정자 6인을 불러 ‘의혹 검증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연맹은 “오은선 씨가 지금까지 공개한 칸첸중가 등정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정상 등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칸첸중가 등정자인 엄홍길(2000년 등정), 박영석(1999년), 한왕용(2002년), 김용식(2001년), 김재수(2009년), 김창호(2010년) 씨 등이 참석했다. 서성호(2010년) 씨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나 회의 중에 전화 통화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사안이 산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이인정 연맹 회장이 직접 참관했으며 회의는 김재복 전무이사도 주재했다.

이 회장은 “전날 오은선과 면담을 했는데 등정에 대한 믿음이 감지했다”며

“오은선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가슴이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오 씨는 “회의 자체가 의혹을 줄곧 제기한 산악인들을 포함한 연맹 이사들로 구성된 것이라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연맹의 의견일 뿐이라서 얼마나 공신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 씨는 여성으로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천m급 봉우리 14개를 완등했다고 선언했으나 봉우리 가운데 하나인 칸첸중가의 정상에 서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작년 5월 오 씨에 이어 칸첸중가에 다녀온 한 국내 산악인이 ‘정상의 사진이 실제 정상 모습과 많이 다르다’고 주장함에 따라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양지호 생애 첫 우승 기회 한국 스포츠 희망을 봤다

<광양출신>

레이크힐스오픈 사흘째 선두

광양출신 양지호(21·투어스테이지)가 한국프로골프(KGT) SBS투어 레이크힐스오픈에서 사흘째 선두를 지키며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에 바짝 다가갔다.

양지호는 26일 경기도 레이크힐스 용인 골프장(파72·7116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더볼보기 1개, 보기 3개로 맞바꿔 이븐파 72타를 쳤다. 일몰 탓에 전날 18번홀(파4)을 마치지 못하고 이튿날로 미뤄던 양지호는 보기를 적어내며 2라운드를 1오버파 73타로 끝냈지만 이어진 3라운드에서 타수를 지켜 중간합계 8언더파 208타로 단독 1위를 달렸다.

하지만 3라운드에서 5타를 줄인 정재훈(33·동아회원권)이 중간합계 6언더파 210타로 김위중(30·삼화저축은행),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이경훈(19·한국체대)과 함께 공동 2위로 뛰어오르며 우승 경쟁을 예고했다.

양지호는 3번홀(파5)과 4번홀(파3)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며 타수차를 벌이는 듯했지만 6번홀(파4)에서 티샷을 해저드에 빠뜨리는 바람에 2타를 잃고 말았다. /연합뉴스



이후에도 양지호는 버디와 보기를 반복하는 기록을 보였지만 타수를 잃지 않고 2타차 선두를 유지해 마지막 라운드에서 첫 우승을 노리게 됐다.

양지호는 “2라운드 마지막 홀을 끝내느라 새벽 5시에 일어났고 선두권에 있다 보니 생각도 많고 부담이 됐다”면서도 처음 찾아온 우승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진호(26)와 김병준(28)이 5언더파 211타를 적어내며 양지호를 3타차로 추격했고 상금랭킹 1위 김대현(22·하이트)은 1타를 잃어 김대성(29·삼화저축은행), 김비오(20·넥슨) 등과 함께 공동 12위(3언더파 213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청소년 올림픽 폐막

금 11·은 3·동 4 종합 3위

근대 올림픽 부활 124년 만에 처음 개최된 지구촌 청소년들의 스포츠 대축제인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 화려한 막을 내렸다.

제1회 청소년올림픽은 26일 저녁 8시30분(이하 한국시간) 싱가포르 ‘플로트@마리나 베이’에서 전 세계 204개국 3천600여명의 선수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우정과 화합의 폐막식을 가졌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강세 종목인 태권도와 유도, 양궁뿐만 아니라 수영, 사격, 펜싱, 근대4종 등에서도 시상대 맨 꼭대기에 오르는 활약을 펼치며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 최강 중국(금30, 은16, 동5개)과 러시아(금 18·은 15·동 11개)에 이어 종합 3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했다.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출전한 대회이긴 하지만 한국이 올림픽에서 3위에 오른 사상 최고의 성적이다.

1948년 런던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한국은 하계 대회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종합 4위를 차지한 게 최고였던 동계에서는 지난 2월 밴쿠버올림픽에서 종합 5위에 올랐다.

영원한 라이벌 일본은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로 종합 8위가 됐고 선수 11명만을 파견한 북한은 남자 역도 62kg급에서 김삼철이 우승하는 등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로 종합 40위에 올랐다.

“미래의 올림픽 챔피언”들을 대거 발굴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한국은 이날 난양 공과대학에 위치한 청소년올림픽 선수촌에서 초콜릿 해단식을 했다.

폐막식에 앞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한 로제 IOC 위원장은 다시 한번 싱가포르의 대회 준비와 운영을 치하했고 응 세르미양 싱가포르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선수들의 활약상에 박수를 보냈다.

2시간여 동안 이어진 폐막식은 마침내 성화가 꺼지고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되면서 막을 내렸고 지구촌 스포츠 가족들은 4년 뒤 중국 난징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연합뉴스